

실용음악 전공자가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찰 : 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조지훈, 조태선*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 wlvlgns92@gmail.com
*e-mail: entheos@chungwoon.ac.kr

A Study on the Method for Practical/Applied Music Majors to Acquire Level 2 Qualification for Teachers: Focusing 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i-Hoon Jo, Tae-Seon Cho*
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Graduate
*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 약

과거 실용음악을 배울 수 있는 곳은 학원, 대학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지만, 실용음악이 대중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으면서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고, 현재에는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 아닌, 정식으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늘어났지만, 실용음악 전공자가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이 힘들어 다른 음악 전공자가 정교사로 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1. 서론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은 현재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0년 9월 그룹 방탄소년단이 세계 각국 대중음악의 지표인 빌보드에서 Hot 100 차트 1위를 하면서 한걸음 더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대중음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10대 청소년들은 진로를 대중음악으로 정하기 시작했다.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진로를 대중음악으로 정하면서 진학하려는 대학의 학과를 실용음악과로 정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실용음악과를 운영중인 학교중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몇 개의 학교는 엄청난 수의 경쟁자를 기록하게 된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러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희망하는 학교에 합격하기 위하여 실용음악 학원들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차별화된 입시전략을 찾게 되었고, 다른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과 같이 고등학교에서도 실용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들을 찾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사회적 현상에 실용음악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고등학교들의 문제는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

득한 실용음악 전공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점이었고, 이에 고등학교에서는 대안으로 다른 음악 전공자 중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는 방법 중 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2. 본론

우리나라 실용음악 교육의 시작은 1989년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최초로 실용음악과를 신설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이후 점점 그 수가 늘어나 현재에는 전국에 약 70여개의 관련 학과가 개설이 되었고,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2020년 기준으로 137.81을 기록하였다. 이렇듯 실용음악을 진로로 정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실용음악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고등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실용음악 전공자 교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녹록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1급, 2급으로 나누어진 정교사 자격증 중 1급 취득 방법은 총 4개 있는데, 그중 한 가지 방법을 제

1) 대학알리미

외하면 모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예외의 한 가지 방법은 대학, 전문대학의 교수, 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이다. 2급 자격증의 경우 총 9개의 방법이 존재한다. 그중 8개의 방법은 대학에서 실용음악과를 졸업한 전공자들이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들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가지 방법,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발급하는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2.1 교육대학원과 음악교육전공

국내 대학원의 시작은 일반대학원으로 1949년 12월 교육법에 의해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1959년에 ‘국립학교설치령’의 개정 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이 설치가 되었고, 이것이 특수대학원의 효시이다.²⁾

교육대학원은 특수대학원에 속하며, 시작은 1963년 4월 서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창설되었으며, 이듬해인 1964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도 신설되었다. 음악교육전공은 음악교육을 희망하는 음악 전공자들이 진학하는 전공이다.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음악 전공자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대학원의 음악교육전공을 진학하여 졸업해야 한다. 국내 교육대학원에 개설되어있는 음악교육전공은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초등음악교육전공을 제외하면 총 39개이며, 여기서 교원의 재교육과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원과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 대학원을 제외하면 35개와 1개의 국악교육대학원이 개설이 되어있다.³⁾

2.1.1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진학 자격요건

국내 대부분의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의 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일반전형의 자격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자 또는 합격자 발표 시기에 졸업 예정자” 또

2) 이형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0.09.16. 검색어 : 대학원

3) 교육부 : 2017교원양성기관현황 3.4.3 교육대학원 전공별·학교별 설치현황

는 “법에 따라 위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다. 그리고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지원자는 “졸업한 대학의 출신 학과와 지원하는 학과가 동일한 전공으로 인정되는 자”이다.

특별전형의 기본 자격 요건은 일반전형과 동일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현직으로 근무하는 교원”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1.2 전형방법

국내 36개의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의 모집 요강과 전화문의로 확인결과, 공통으로 서류심사가 반영되고, 그 외에는 각 대학원 마다 심사 방법이 다르다고 나왔다. 서류심사로만 심사를 하는 대학원이 있고, 서류심사 외에 필답고사와 면접고사, 서류심사를 추가하여 심사하는 대학원들이 있다.

필답고사의 기출문제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대학원이나, 전화로 문의를 하여 공개를 하는 대학원의 기출문제를 확인한 결과 주로 서양음악사, 국악과 관련된 문제,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문제들로 출제 되어 있었고, 실용음악과 관련된 문제는 없었다.

실기고사 시험 내용을 홈페이지나 모집요강에 등재를 해놓은 대학원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대학원이 있었다. 등재를 해놓은 대학원의 시험내용을 조사한 결과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클래식에 관련된 실기 시험 또는 국악 관련 실기 내용이었다.

필기, 실기 내용을 공개한 대학원의 전형방법을 확인한 결과 실용음악에 관련된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다.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개된 내용에 주로 성악, 현악, 관악, 타악 등 클래식에 사용되는 악기를 중심으로 시험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실용음악 전공자는 대부분이 위 내용에 해당 되는 사항이 없다.

2.2.2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각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의 교육목적을 확인해본 결과 각 대학원마다 세부적인 부분은 다르지만, “음악 교육을 담당할 음악교사를 양성한다”라는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였다.

대학원 입학 후 배우는 수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수업은 각 대학원마다 과목이나 명칭에 있어서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다. 교수법연구, 전공실기, 서양음악사, 화성법, 지휘법, 음악분석, 피아노 반주법, 시창·청음 등 주로 클래식 전공 관련

된 수업들과 국악이론, 국악개론, 국악실기, 국악사, 장구반주법, 국악 가창지도법 등 국악 전공 관련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3] 교육부 : 2017교원양성기관현황 3.4.3 교육대학원 전공별·학교별 설치현황

3. 결론

국내 실용음악 교육이 시작된지 30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많은 도전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이를 통해 수 많은 뮤지션을 배출했다. 그렇게 활동하는 뮤지션들을 보고 자라며 꿈을 키운 청소년들은 장래희망으로 뮤지션을 꿈꾸고 실용음악과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실용음악 교육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그 시작이 실용음악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라 사료된다. 실용음악을 교육하는 많은 고등학교들이 생겼지만, 실용음악 전공자 정교사가 아닌 다른 음악의 전공자가 정교사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써 허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정교사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교에서 상주 하면서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친다. 청소년기 그중에서도 진로를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등학생 시절에 진로 상담과 입시 상담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 실정은 다른 분야의 전공자와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중이다. 이는 실용음악 전공자가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사료된다. 어렵게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에 입학해 해도 대학원에서 배우는 수업들이 대부분 클래식과 국악에 관련된 수업이라 실용음악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실용음악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신설하고, 관련 교육대학원을 신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교육자를 양성하는 것은 뮤지션을 꿈꾸는 국내 청소년들이 받는 교육의 질 향상과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 대중음악의 위상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대학알리미
 [2] 이형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0.09.16. 검색어 : 대학원